

■ 괴운(槐雲) 칼럼



교각살우(矯角殺牛)와 어목혼주(魚目混珠)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의 현상과 흡사한 고사성어(故事成語) 교각살우(矯角殺牛)와 어목혼주(魚目混珠)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교각살우(矯角殺牛)이다. 이는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이다. 즉 잘못된 점을 잡으려다가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을 두고 하는 말로, 중국 동진(東晉) 때 곽박(郭璞)의 '현중기(玄中記)'에서 나온 말이다.

진나라 때 한 농부가 제사에 쓸 소를 몰고 가다가 뿔이 약간 비뚤어져 있어 그것을 펴려고 끈으로 동여맸더니 소가 죽었다. 조그만 결점을 고치려다 큰 손해를 입은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데 열심이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할까.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에 하는 말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檢搜完剝)'이다. 이른바 검찰의 무력화를 조장하는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을 범죄에서 지켜야 한다는 검찰측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 실제로 피를 흘리는 실전의 전투는 아니지만 민심이 분열되고 사회가 불안한 것은 틀림이 없다.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우(愚)를 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목혼주(魚目混珠)이다. 이는 '물고기 눈(가짜)이 구슬(진짜)과 섞이다.'란 뜻이다. 즉 '백골(白骨)은 상아와 비슷하고, 물

고기 눈알은 구슬과 흡사하다.'는 말로 중국 서한(西漢) 때 한영(韓嬰)이 지은 시경 해설서인 '한시외전(漢詩外傳)'에 있는 말이다. 최근 마스크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치사회 실상은 온통 '진흙밭의 개싸움'인 이진투구(泥田鬪狗)의 연속이다.

나라를 책임지고 잘 운영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목숨을 건 진검승부(眞劍勝負)가 매일 연출되고 있다. 국민 보호를 위한 법(法)은 합부로 재단되고 변질되어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가려지고 가짜는 결국 망하게 되는 법이다. 일찍이 중국 한(漢)나라 작은 고을에 마음씨 착한 만의(滿意)라는 상인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영롱한 빛을 품는 커다란 진주를 사서 자손들에게 가보(家寶)로 물려주려고 붉은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이웃집에 수량(壽量)이라는 게으른 가난뱅이가 살았다. 그는 허영심이 많아 부자행세를 하면서 만의의 부(富)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루는 시장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고기 눈알 하나를 발견하여 주머니에 넣고 진짜 진주 다루듯이 애지중지하였다. 그런 가운데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병이 들어, 의원이 진주를 갈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자, 만의가 진주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수량도 보관 중인 물고기 눈알을 가지고 달려갔다.

마을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보자기를 풀자 만의의 하얀 진주는 광채를 뽐냈으나, 수량의 진주는 광채가 없는 칙은 물고기 눈알이었다. 그 후 수량은 마을사람들로부터 망신

과 조롱을 받았다. 이처럼 '물고기 눈알과 진주가 서로 섞이다.'는 뜻으로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를 비유한 말로 어목혼주(魚目混珠)가 쓰이고 있다.

진짜와 가짜는 과학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격심해지고 있다. 보통사람들은 식별하기가 어렵다. 어쩌다보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사이비(似而非)라고 한다. 닮았지만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근본적으로 아주 다르다(似是而非)의 준말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있어 걱정이다. 일부 양심을 버린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한'이란 달콤한 사이버로 대중을 현혹시켜 권력과 재물(權財)을 절취하고 양심에 난도질하여 어목(魚目)을 진주(珍珠)로 호도하는 한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조선 중기 장유(張維)는 그의 문집 '계곡집(鷄谷集)'에서 '잠시 겉모습만 보고서 속마음을 믿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어도 뉘우쳐 바꾸게 할 수 없다(視其外而信其中 故有奸人亂國而不可悔者也)'고 하였다.

오늘은 현재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검수완박의 기(氣) 싸움이나, 가짜와 진짜를 호도(糊塗)하는 정치가나 언론의 행태를 비유한 고사성어를 알아보았다. 차체에 우리 국민들은 '욕망보다 무서운 것은 없고, 인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莫畏於慾 莫善於忍)'.는 경구를 되새겨 보며, 선량한 국민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의 그릇된 양심이 정의의 울음으로 변하여 진짜가 바로 서는 세상을 소망해본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지속적 순환의 미학

1. 지속적 순환의 모습, '∞'

순환은 자원이 투입되어 산출되는 경로에서, 그 결과물에 대한 일부가 다시 투입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순환이 잘되면 그 개체나 조직은 통상 건강하며,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단순한 흐름을 직선으로 그린다면, 통상 순환은 원으로 표시된다. 그 원을 한번 꼬아 돌리게 되면 소위 '8'자 형태나 '∞'의 형상으로, 이는 순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무한대로 표현된다.

이동의 관점으로 '∞'을 보면, 가운데를 향하여 곡선으로 들어와 또 곡선의 모습으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다. 이 도형에는 4개의 변곡점이 있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때로는 빠른 속도의 급격한 변화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참고로, 곡선에서 경로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으로, 이 영역에서는 진행방향이 바뀌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며 그 기울기에 따라 변화의 속도도 달라진다.

하나의 원을 하나의 세계로 간주하면, '∞'는 두 개의 원의 형상이므로 두 개의 세계로 간주된다. 바꾸어 말하면, 두 개의 세상이 만나면 다양한 변화와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진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 주는 무한대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2. 심장과 폐에서 피의 '8'자 순환

우리 몸에서 피는 심장의 동맥에서 나아가 정맥으로 들어와, 폐의 정맥에서 동맥으로 빠져나가 다시 심장의 동맥으로 진행되는 경로를 가지는데, 그 피의 순환의 과정을 표시하면 무한대의 '8'자의 모양이다.

한방에서 폐는 음의 장기이며 심장은 양의 장기이다. 그 음·양이 각 원과 같은 순환구조를 이루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처럼 들면서, 나의 몸에서 60여 년 동안 큰 고장 없이 피를 정성껏 돌려주어 나의 생명이 건강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대견하며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3. 몸으로 하는 '∞' 체조

관절을 사용하는 체조는 '∞'의 방식으로 활용될 때 더 효율적이다. 몸 앞의 중앙을 기준으로 양 팔 또는 한 팔을 돌아들어오게 해서 돌아

권희안 (시중공파 37세)
한의학박사 / 안양지역총친회원
3축관절스윙 골프아카데미 원장

나에게 만드는 체조는 비교적 다양한 관절을 사용하게 만들어 그 성과가 좋다.

글로벌 전달하고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몸체의 상하가 '8'자의 형태로 움직였을 때 몸의 회전을 크게 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 몸이 서서 회전할 때, 왼쪽 발꿈치의 회전이 밖으로 돌면 오른쪽 발꿈치는 안으로 돌게 된다.

이는 골프스윙에도 적용된다. 필자가 정밀한 관절3축지레 골프스윙은 스윙을 하기 위한 몸의 가동성 관절의 동작과 핸드그립의 작용은 기계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폼 앞에서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쉬스윙 및 컴다운스윙의 연속동작으로 만들어내는 핸드그립 또는 손꿈치의 모습이 '∞'의 모양으로 드러날 때에 그 스윙은 더 정교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운동법은 영정관절과 함께 회전하는 맨손 체조법으로 활용하여도 유익하다.

4. 재물의 건강한 순환

우리나라 주류유통에서 선두업체를 경영하는 지인과의 대화는 필자의 생각을 크게 만들어준다. 유통업의 경영인답게 흐름과 순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 재물이 잘 흘러야 하며, 그것도 오래 한 곳에 머물면 굳어지거나 부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이에 따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물의 상환선의 필요성도 덧붙인다. 그 분이 소유한 재산의 정도가 가히 작지 않으므로 그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말씀은 필자에게 사회를 구성하는 자원과 가치의 건강한 순환에 관한 '∞'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많이 가진 자의 재산이 적게 가진 자에게 흐르고, 많이 가진 자의 고통이 적게 가진 자에게 원활히 흐를 때,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것이다.

5. 환경의 지속가능

환경과 관련하여 지속가능(sustainable)이란 말은 1987년에 UN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에도 큰 힘을 가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다.



요즘은 탄소제로(탄소중립실현)가 국가 및 기업의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탄소는 우리생활에 매우 필요하므로 사용하는 것이고, 과다 사용하다보니 환경순환과정에서 적정 순환 이상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 상기후의 주범으로 치부되면서 지구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생활에 필요하지만 그 과다사용의 결과가 도리어 해가 되어 침범하는 것은 최대한 그 사용을 인류 개개인이 스스로 제어하여 원활한 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서 다른 하나가 위축되거나 찌그러들 때 오염된 세상의 지속가능으로 전락하게 된다.

다른 요인을 가진 두 세계가 하나의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지고의 가치를 지닌 성숙한 의식은 지속가능의 바탕이 된다. 자원을 활용하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순환이 균형과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이 되려면 순환이 잘되어야 하고, 그 모양은 일직선이나 단순한 원이 아니고, '∞'의 멋진 모습을 가져야 한다. 두 개의 동그라미가 높은 가치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그 흐름은 더 규칙적이 되어 안정성과 조화를 가지며 지속가능해질 것이다.

■ 이달의 시

고려의 절신(節臣) 송고공(松阜公)



권택범 이사

고려의 젊은 충신 고결하신 송고(松阜) 선조

조선의 백이숙제 고려신하 지킨 기절

염송산 십삼유곡에 곧은 신조 숨었네

다섯번 회유교지 누구라서 물릴손가

순금사 옥살이로 고려절신 남은 명신

예천의 대숲마을이 피아골을 지킨다

이 시(詩)의 배경이 된 송고(松阜) 권초(權樞, 좌윤공파, 17世)는 안동 사람이다. 고려 후기 약관에 문과에 급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을 때 판재용감사(宗室用品)였으나 이신빌군(以臣伐君)에 처를 떨고 고향으로 내려와 예천에 은거했다. 태종 재위 때 성균관대사성, 함경도관찰사 등 무려 다섯 번이나 교지를 내렸지만 송고공(松阜公)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은거지 염송산에서 나오지 않았다. 후인들은 송고공(松阜公)을 두고 조선의 백이숙제로 불렀다.

시조시인 권택범, 시조사랑 신인상, 사)한국 시조협회 이사

서울산악회 제329차 정기산행 안내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3년 9월 17일 10시(시간엄수)
- ♣ 장 소 : 인천 공항철도 운서역 대합실
- ♣ 산행지 : 장봉도 둘레길(운서역-삼목항 버스 이동후 배편이용)
- ♣ 준비물 : 도시락, 생수, 간식, "신분증" 필수 꼭^^

- 회 장 권영복 :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순휘 : 010-3797-1874

2023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총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2023년 9월 월례회는 추석명절로 인해 개최하지 않습니다.

“온가족이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3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총친회 회장 권승구